

시민 체감 주거복지 역량 집중

군산시, 주거급여 사업 기준완화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군산시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안정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 기준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업·구직을 위해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또 수급자 자가가구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 급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눔

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해 220여 가구가 지방공사, 단열공사,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설치 등을 지원을 받는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보증금(최대 600만원 내) 무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부담을 줄여 쾌적한 보금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층 이사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중증의 독거장애인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귀촌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료로 임대

하는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농어촌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화재나 수해 등 재난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주거시설 제공,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거복지사업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책자와 홍보물품을 제작해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시청 민원실에서는 '주거복지상담창구'를 영중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창구'로 전환해 직접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고병민 기자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추진 위한 전담 T/F 구성

군산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전담 T/F 및 콜센터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부시장을 단장, 복지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한 T/F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행정·예산·전산 등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급 대상을 발굴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T/F 구성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인해 기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조율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춰 가구,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

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카드수수료는 전액 시비로 신청자 600여명에게 오는 27일 지원한다.

시는 당초 전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인 카드 수수료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이 계속

돼 50만원 초과 발생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을 하기 위해 39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 신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를 할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 3억원 이하이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유증·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업체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원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나운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DWP(대왕페이퍼, 대표 김동구)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의 원활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군산 나운2동 지사보험·대왕페이퍼와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나운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DWP(대왕페이퍼, 대표 김동구)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의 원활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DWP(대왕페이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위생용 종이 제품을 연중 수시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품목과 규모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DWP(대왕페이퍼)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에 따라 성금 및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김동구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변에 생계 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나운2동의 행복나눔 공유공간과 같은 지역 나눔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에 나눔을 실천하는 (주)대왕페이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운2동을 만들기 위해 공유공간이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과 생활용품 공유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마련된 사람 나눔 프로젝트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현재까지 1,000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가구를 위한 최대 지원금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에 나눔을 실천하는 (주)대왕페이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운2동을 만들기 위해 공유공간이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과 생활용품 공유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마련된 사람 나눔 프로젝트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현재까지 1,000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가구를 위한 최대 지원금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선광지사, 코로나 극복 성금 1000만원 기부

군산시는 (주)선광(지사장 엄기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선광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엄기배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수록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주)선광 군산지사는 2020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정찬용 국학자료원장
군산시립도서관에 도서기증

군산시립도서관은 도서출판 국학자료원 정찬용(71)원장이 도서 2,500권(5천만원 상당)을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김갑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기증자인 정 국학자료원장과 기증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문철상 광송 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권 국제뉴스 전북본부장, 조관철 국제뉴스 기자, 김우민 시의원 등 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정 국학자료원장은 군산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도서 2,500권을 전달했다. 정 원장은 우리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한국문화 콘텐츠를 창출해 출판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도서에는 한국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

군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품목은 총 52종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상이하다. 올해 하반기 가입 가능한 품목은 보리·밀, 양파, 자두·매실(11.5~11.27) 등이 있다.

특히, 올해 군산시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3,441농가, 면적은 7,381ha로 작년 동일 기간 대비 각각 농가 160%, 면적 150% 증가했다.

시는 태풍, 장마, 폭염 등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기준을 자부담 20%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 10%로 경감시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